

에스겔13장

에스겔 5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네 가운데서 삼분의 일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그들은 기근으로 네 가운데서 진멸 되리라. 또 삼분의 일은 네 주위의 칼에 쓰러지리라. 또 내가 삼분의 일을 사면에 흠어 버리고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그리하여 내 화가 이루게 되리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있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위안 받게 되리라.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안에서 이루면 그들은 나, 주가 열심히 그것을 말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성냄과 분노와 열화 같은 책망으로 네게 심판을 행하면 그것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에게 질책과 조롱과 교훈과 놀라움이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내가 기근의 악한 화살을 그들에게 보내면 그것이 그들의 파멸이 될 것이니 내가 너희를 멸하려고 그것을 보내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늘려서 너희의 식량 봉을 꺾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악한 짐승들을 보내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앗아갈 것이요, 전염병과 피가 너를 지나가리니 내가 칼을 네 위에 가져오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요, 내가 주 인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아라. 다시 말해서 이 성경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요즘도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 말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다가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

는 방법은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에도, 지금 하나님 말씀인 신약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않고 함부로 행하다가 그 다음에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말씀하셨는데 안 보이니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때 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또 죽였거든요, 죽이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이란 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7년 대 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인 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 호리병 재앙 있잖아요, 6장부터 18장까지 쪽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 재앙들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있죠, 또 교회는 나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휴거되지 못한 사람도 한꺼번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말씀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그 때 알게 돼요, 그 때가 되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멸망하죠, 소수의 사람만이 대 환란 때 구원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리칩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구원 못 받으면 대 환란에 넘어 가죠. 넘어가면 또 받게 되어 있죠, 먹고 살

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가 뭔가하면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
이요, 그 분이 구세주요 그 분을 믿지 않으면 대 환란에 넘어간다. 조만간에 우리 앞에 닥
칠 대 환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모든 성경은 다 유익하다고 그랬
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구비되는데 철저하게 유익하다고 사도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
지할 때 말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기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수만 남겨둡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민족을 인도할 때 그럴 때 다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만 남겨놓고 다 죽
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정, 모든걸 다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재앙이 일어나도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그
러는 사람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다면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사실은 천재
지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신병잔데, 요즘에 모든 재앙들을 보세요. 칼, 전쟁, 기근, 그렇
죠, 가뭄으로 인한 거, 홍수로 인한 거, 다 망치죠, 전염병,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짐승들이 죽었습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무슨 돼지 독감, 어느 한 사람도 하나
님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왕따로
몰릴 거예요. 어느 목사가 그런다면 그 때나 지금이나 지진 같은 거, 원자로나 폭발하는 거,
엄청나게 사람이 죽잖아요, 일본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몰라요, 그들은 귀
신을 섬기다가 그렇게 된 것을 몰라요, 그러므로 이것을 겪어 보지 않으면 대부분이 죽고
소수만 남지 않으면 인간들이 깨닫지 못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미련했습
니까. 아직도 미련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전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 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도 예레미야는 포로로 가기 전에 경고했죠,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죽임을 당
할 뻔하기도 하고 얼마나 몇 번 됩니까? 참 그는 오죽하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결국 하나님 말씀 하지 않을 때 견딜 수 없었죠. 예레미야15장 1절2절 보면 은
하나님이 얼마큼 화가 나셨는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목전에서 쫓아내어 그들로 가게 하라. 만약 네게 말하
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거던 너는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죽은 자는 죽
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 당할 자는 기근으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힘으로 나아갈
지니라. 내버려 둔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 백만 명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행진할 때에 오죽하면 다 죽이고 두 사람만 살렸겠습니까.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 바위를 두 번 쳤잖아요. 반석에게 말하라.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는데 반석을
두 번을 쳤어요. 한 번 쳐서 물이 나와서 먹었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은 바로 영적 음료를 주 반석은 예수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모세가 그
것을 모르고 반석을 두 번 쳐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한 번 치면 되는 거 거든요. 한 번 쳐
서 물과 피가 다 나와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피로 씻김 받는다. 그 말씀의 물로 정
결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모르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두 번 쳤어요. 오늘날도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말
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건 안하고 막 예수님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원
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건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려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 백만이 다
죽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우린 음행하지말자. 우린 원망하지 말자. 이게 성령께서 신약교회 성도
들에게 저들의 본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결국 휴거되는 성도들은 신약시대에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읽었지만 사도바울
은 난 어떡하든지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휴거 되는
게 내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함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 그의 목표는 휴거였

어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휴거에 목표를 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 오히려 휴거 그러면 이상하게 보죠, 이런 때가 된 거예요. 휴거라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주님이 우리 데리려 오시는 날이 소망이지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이 조심하게 되어있죠, 그것에 맞추지 않으면 맘대로 행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 욱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줄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심판하는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그냥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한 거예요. 너희 이럴 수가 있는냐?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모든 동물까지도 식물로 다 줬는데 너희 이럴 수가 있느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본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분명히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줬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죠,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도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5,6절보게 되면

오! 예루살렘아, 누가 너희에게 동정을 베풀며 누가 너를 애도하며 누가 네 안부를 물으려고 가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뒤로 물러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라.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도다.

지쳤도다.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쳤대요. 문 밖에 쫓겨 나가지고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애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망하면 멀리가십니다. 오시질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요. 성령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에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14절보니까 또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지금 그렇게 되었죠. 1948년에 간신히 독립을 시켰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게 되

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다시 이스라엘을 세계중심으로 계획하셨고 주님 예수님께서도 시온에 오시죠. 시온 그러면 똑 같은 예루살렘인데 시온이라고 그럴 때는 유다 지파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럴 때는 거기에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 할 때 시온산, 또는 시온,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중심이 되죠, 그러나 중심이 되기까지 그들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회개케 해 가지고 남은 자들만이 거길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요. 이방인들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때 회개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때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들로 들어갑니다. 옛날 광야를 행진할 때도 어떤 민족들은 우리가 당신들의 물을 길어 주고 장작을 패는 그러한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 꿈무니에 따라갔어요. 꿈무니에 졸졸 따라 가면서 이스라엘민족들을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들어가는 이방인들도 그래서 그들을 섬겨야 되고 장막절만 되면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하러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스가라서 나오죠. 천년왕국이 열릴 때 다시 수도가 되죠. 수도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목전에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더 심하게 됩니다.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8,19절 보세요.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참 괴로웠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29장 18,19절 보면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세 가지가 나오죠. 그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주와 놀람과 경멸과 모욕이 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언대로 됐죠. 2천 년 동안 모든 민족 가운데 저주와 경멸과 모욕의 대상이 됐죠. 2차 대전 때는 뭐 그들이 당했던 것이 저주와 경멸과 모욕 아닙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재산을 다 뺏겼죠. 완전히 몰수당하고 가방 하나 들고 갔는데 그것도 뺏기고 옷도 뺏기고 별거송이 되어 가지고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간게 BC606년이거든요. 그래서 1948년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2천년이 넘잖아요. 그 속에서 그들이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옛날 팔레스탄으로 돌아 가라고 할 때도 그들이 정박할 항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다 굶어 죽었어요. 미국이 유일하게 그들을 받아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물론 프리메이슨이 있는 나라였지만은 미국 정부와 프리메이슨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그래도 제일, 지금은 타락했지만, 60년대 케톨릭 신자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영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하기 시작했죠. 60년대부터, 그렇지만은 그 전에는 좋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생아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소수라도 건져 가지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사람들을 신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소수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좁은 장소로 온 겁니다. 많은 사람 기대할 것 없어요. 많은 사람 기대할 것 없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성냄과 분노와 열화 같은 책망으로 네게 심판을 행하면 그것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에게 질책과 조롱과 교훈과 놀라움이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실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고통을 받는가? 들어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모든 민족들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까지 배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크리스찬들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교훈으로 삼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도저히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천국을 차지하려
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심판했지만 하늘에 갈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될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가지고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여러
분. 아무리 심판을 해도 하늘에 갈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그리스도와 결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방법은 어떻게 ?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잠깐 죽어서 가지
고 아담처럼 잠깐 죽어서 가지고 이브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
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요, 또 요즘 크리스찬들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
님의 공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 메시아라고 그러더니 죽었네? 자기들이 죽인 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처절하게
죽으신 분을 말이죠. 부끄럽게 죽으신 분을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야까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 그러면 신, 구약을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 되게 하려함이니라. 철저
히,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히 읽어야 됩니다. 철
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래서 신약시대 사는 우
리들이 구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거기서 교훈을 받고 의로 훈육이 되어서 의로워 져야 되
겠구나. 우리가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를 지을 때 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구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안에 계신 분
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또 읽지를 않으니까. 또 전파하지 않으니까 설교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왜 오는 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재난이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
국에도 그렇게 재난이 많잖아요. 그래도 몰라요. 앞으로는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근의 악한 화살을 그들에게 보내면 그것이 그들의 파멸이 될 것이니 내가 너희를 멸하려고 그것을 보내리라. 또 내가 저희에게 기근을 늘려서 너희의 식량 봉을 꺾으리라.

화살,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죠. 또 우박 같은 거, 서리 내려가지고 완전히 농사를 망치게 할 수있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메뚜기 떼가 와서 잡아먹기도 하죠, 메뚜기 떼, 들쥐들, 병충해, 이런 것들 다 농사를 망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23절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28장부터 쪽 나오잖아요. 신명기 32장 보면 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쌓고, 내가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보내리라.

화살들을 보낸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배웠죠, 6장에 1절에 첫째 인을 떼 때 누가 나오니까? 흰 말을 탄자가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와요? 활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쓰는거예요. 적그리스도에 활을 들려 가지고 그 영적인 활이죠, 활을 들려 가지고 그가 지나가면 뭐해요? 지옥과 사망이 따르고 기근이 따르고 전쟁이 따르고 전쟁은 칼이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근은 뭐예요? 완전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따르죠. 이 세 가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신명기 이런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죠.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에게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분 그 분을 믿지 않는 게 죄죠. 그 분은 믿지 않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이 율법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다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죄를 안 짓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야 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

람도 서로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눈치를 보다가 저 분이 이걸 좋아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좋아 한다고 해요. 그 분이 싫어하면 나는 좋아 하지만 싫어하는 척 해요. 이게 바로 사랑할 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에 왜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나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지만 요한 계시록은 구약의 열쇠라고 그랬죠. 구약의 활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활이 되니까 아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활이구나. 그래서 그가 지나가니까 사망과 지옥이 따르는구나 기근이 따르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 있죠. 대 환란을 통과하겠다는 사람 보면 용감한 사람들이예요. 어떻게 통과 하겠다는지 몰라요. 신부를 데리고 간 다음에 마지막 한 이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을 안 믿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17절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악한 짐승들을 보내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앗아갈 것이요. 전염병과 피가 너를 지나가리니 내가 칼을 네 위에 가져오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먹고살게 없어 허덕거리고 있는데요, 늑대나 여우나 곰 같은 게 나와 보세요. 엄청나죠. 여러분 대 환란 때 뭐가 나타납니까? 메뚜기 떼가 나오죠. 황충이라고 되어있는데, 메뚜기,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마귀예요, 이게 올라와요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9장에 계속 올라오죠, 사람들을 뜯어 먹어요, 뜯어 먹는데 죽지를 앓아요, 죽고 싶는데 다섯 달 동안, 5자가 사망의 숫자 아닙니까, 다섯 달 동안 뜯어 먹어요 이거 본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때 되면 그들이 알게 되겠죠,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짐승들이 나온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옛날 신화에 나오는 이상한 동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는 거죠. 거기다 전염병까지 더해 보세요. 또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이것은 뭐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미칠 겁니다. 도저히 견디기에는 내우외환이죠. 안으로도 밖으로도 내우외환이죠, 한국 사람들이 6.25때 겪었잖아요. 신사참배를 해 가지고 겪으면서도 뭔지도 몰랐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서 마지막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회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분이 크리스찬 아니었습니까 좌우간 그리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회개할 때입니다. 한국이, 교회가 회개할 때입니다. 모세의 노래에도 나와요. 우리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나오죠. 어린양의 노래도 있고 모세의 노래도 있는데 신명기 32장 23절로 26절을 보면 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쏟고, 내가 그 들에게 내 화살들을 보내리라.

그 들은 굶주림으로 불탈 것이며 불타는 열기와 혹독한 멸망으로 삼켜지리니, 내가 또한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이와 처녀를 멸할 것이요, 백발의 노인과 더불어 젖먹이도 그러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사방에 흩어서 그들의 기억을 인간에게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니,

참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민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환란 때 되면 본격적으로 당하고 그 때 가서야 그들이 회개합니다. 우리 한 번 스가라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지 12장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와요. 이게 칼이요, 칼, 10절

또 내가,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찢었던 나를 쳐다 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와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요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 놓으시고 보기 싫어가지고 껌껌하게 만들

었죠.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아버지가 비참하게 한 것처럼 그들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라. 이게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비통하니까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바로 그날에 회개하는 그날에 다음날도 아니 예요, 그 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그들이 회개하죠, 그러면 그들은 그 날 용서받아요. 그날 용서받고 모든 민족이 그날 남은 자들이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 환란에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이 잘리든, 도망가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살아남죠. 굶주림 가운데 태양의 열기 가운데 살아나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구름위에 나타나요. 낮을 들고 나타나요. 그럼 낮을 가지고 곡식을 거둬갑니다. 이게 환란 때 휴거예요. 환란 때 휴거되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고통 받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바울처럼 내가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온전해졌다함도 아니요,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게 함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날만 바라본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지만 이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본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비참한 자다. 그러나 그는 부활했고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것이 다 없어져도 상관없다.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모욕 받고 궁핍하고 박해 받고 그래도 곤경에 처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것을 본다면 오늘날 교회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면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말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나님말씀 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하나님말씀 이에요.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십계명도 저리가고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예수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애깁니까. 그러므로 정말 회개해야 되죠.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LA 도성에 있는 교회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에 아직도 회개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예수의 피로 온전히 씻김 받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그 피로 뿌림 받아서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 이곳 LA에 있는, 소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축복된 장소, 예수의 피로 힘뻑 뿌려주옵소서 성령님 임재 하시옵소서. 불 같이 바람같이 임재 하시옵소서.